

스토킹처벌법 6개월...서울 스토킹신고 587→4127건 급증

지난 6개월 스토킹처벌법 신고 건수 603% 증가 “범죄라는 인식 안착되고 있어 신고 건수 증가”

서울 내 스토킹 신고 건수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6개월여만에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되어 6개월간 112 신고 건수가 3540건(603%)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스토킹처벌법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127건으로, 전년 동기(587건)에 비해 603% 증가했다.

최 청장은 신고 건수 증가 배경에 대해서는 “법 제정 전후기에 국민들 관심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범죄라는 인식도 안착되고 있

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건수들 중 907건의 피의자가 정식 입건됐고 523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 가운데 35건은 피의자가 구속수감됐다.

신고 건수에 비해 입건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스토킹처벌법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최 청장은 현 법률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눠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접수된 건물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일부러 고부연했다.

오유나기자



3년만에 재개되는 연등회 부처님오신날을 2주여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관계자들이 전통 연등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여동생 남편에게 협박과 강간 당했다” 청정원

“불륜이라고 합의해 달라 협박”

재혼한 여동생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정원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친족간의 강간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여동생의 재혼으로 피의자를 3년 전에 처음 보게 되었고 동생 부부와 가까이 산지는 2년 정도 된다”며 “1년 가까이 피의자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고백과 집착, 스토킹에 매일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여동생이 받은 충격을 우려한 A씨는 피해 사실을 숨기면서 피의자를 밀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동생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때부터 피의자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피의자는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음 준 것이 죄냐” “위자료도 못 준다” 등 적반하장 태도를 취한 것도 모자라 “조카와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까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건 당일 피의자가 문자로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제 1층에 놔두고 간다고 가져가라고 문자가 왔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20분 뒤 짐 나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의자가 현관 문 앞에 서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가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의자는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 잠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A씨는 도망갈 곳도 없고 피의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커피를 내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갑자기 돌변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며 “진정 엄마, 여동생, 조카 집 앞에 사람을 대기시켜 놔다. 차례대로 황산을 얼굴에 붓고 끌고 가 물어버릴 계획이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협박하며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이런 협박을 믿을 수 없냐고 하시겠

지만, 피의자는 동생과 이혼 소송 준비 중에도 전부 죽이겠다고 협안이 돼 있던 사람”이라며 “동생과 재혼 전 전처와의 관계에서도 살인미수, 사기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심мет 년 하다가 나왔다. 강제 생활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그의 가방에는 케이블 타이와 황산이 들어 있었다”며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성관계하고 얼굴에 황산을 붓고 칼로 찔러 같이 죽으면 그만이라더라.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면 가족과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A씨 코끝에 칼을 갖다 대고 황산을 옷가지에 부어 위해성을 직접 확인 시켜 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멈춰달라고 애원해도 끝까지 자기 욕구를 채웠다”며 “신고하면 외국인을 시켜 언젠간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 말과 비밀을 지키라고 한 뒤 떠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 피의자가 전화가 왔었고 형님(남편)은 내일 뭐 하나는 말에 남편 일하러 간다는 말을 했다”며 “남편이 집에 없다는 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3개월 전, 피의자가 타 준 커피를 마신 지 10분여 만에 혈소판 감소 증상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이때 내게 마약을 먹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에도 마약을 소지한 그는 본인 입으로 커피에 탄 것이 마약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커피에 최음제를 타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여전히 A씨를 괴롭히고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피의자는 손 편지를 보내 위자료 이혼조건에 나와 불륜 저지른 것으로 해달라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고 두려움에 떨었다. 또 피의자는 “전혀 죄책감 없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며 “오히려 못 죽이고(구치소에) 들어가게 한”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누나와 엄마 역시 모든 일의 책임을 이혼을 요구한 A씨 여동생에게 돌리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경찰, 서울 강서구 60대 여성 살해 피의자 3일 만에 검거

“아파트 퇴거 및 이사 비용 마련 위해 살해” 진술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40대 남성이 25일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 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 내에 숨어있던 박모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이웃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해 동선을 추적해왔다. 박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한 뒤 모텔 투숙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의 퇴거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A씨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45분경 ‘연락이

달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현장 상황과 변사자의 상태, 및 부검의 소견 등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유족에 인계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품 수사 등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